

VISION

전기공학도의 뿌리를 찾아서...

글 | 제도연구실 손영선

Q 동서울대학의 vision이 앞선대학, 알찬대학, 열린대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동서울대학은 1978년에 대유공업전문대학으로 시작하여 1998년 동서울 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지난 30여년간 “인격과 기술이 겸비된 전인교육”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평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 지금까지 5만 여명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국가 기반산업에 필요한 산업역군 및 사회 변화와 산업 변화에 맞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발전은 대학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대학의 발전은 학생들의 발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동서울대학만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대학, 대학과 학생,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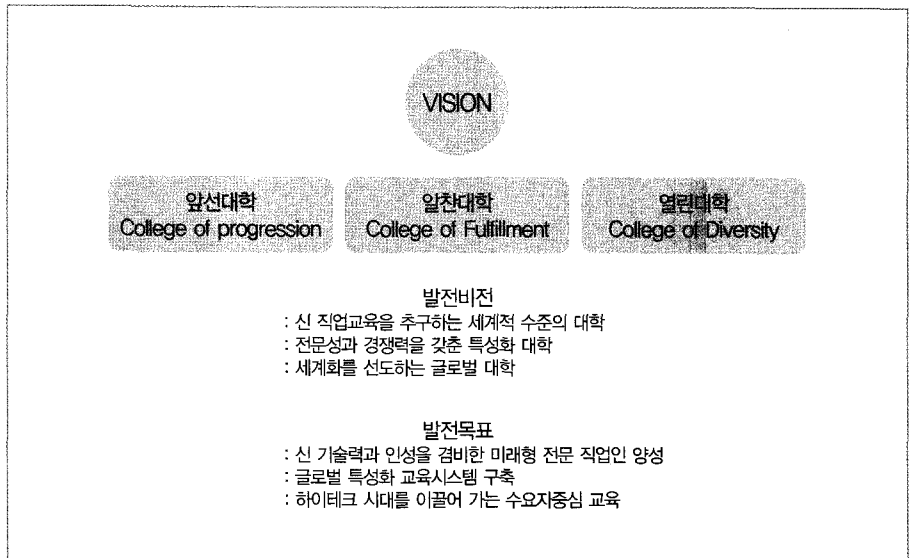
과 국가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Q 귀 교는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인센티브)지원 대학으로써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울 대학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은 각 전문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갖춘 비교우위 분야의 집중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표브랜드”를 갖춘 전문대학을 평가·선정하는 것으로, 2010년도 평가에서 우리 동서울대학이 교육역량강화사업(약 30억원) 및 대표브랜드사업 A등급(12억원)으로 선정되어 총 4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우수학생의 장학금을 확대, 국내·외 교육연수강화, 전기분야 특강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승연
동서울대학 전기정보제어과
학과장



우리 동서울 대학은 이전에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많은 지원을 받은 바 있는데, 2004년, 2005년도에는 지식경제부(前,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전력산업 기초인력 양성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어 총 6억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장학금지급 확대, 기자재 구입, 전력마이스터프로그램 운영, 국내 및 해외기술교육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Q 귀 교는 전기공학을 3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공학도를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나 학교에서 취진하고 있는 플랜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전기정보제어과는 1978년 대우공업전문대학 개교와 출발을 같이하여 “전기과”란 학과 명칭을 시작으로 2002년 지금의 “전기정보제어과”로 과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2월 제32회 졸업식 기준, 4,8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한 동문들은 각 분야별 산업체 현장에서 국가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과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기정보제어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1년 과정에서는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실험실습을 통하여 그 원리를 이해하며 컴퓨터 실습을 통해 전산능력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2년, 3년 과정에서는 설비와 제어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전공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전공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있다.

Q 회장님께서 요즘 전력산업에 이슈화 되는 전력IT융복합화,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정책 추진으로 원자력과 신재생 발전설비가 확대되고, 전력의 효율적인 발전과 분배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비전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울대학도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인력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력선 통신,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교과목을 신설하고 관련 실험 실습 장치를 구매하여 인력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Q 동서대학을 졸업한 많은 전기공학도가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학·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기인에게 새해맞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A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던 2010년을 떠나보내고 2011년 신묘년에는 토끼와 같이 부지런히 뛰어서 희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고부가 시대에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가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에너지 절감 및 국가 전력안정에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